

서호인의 '소설처럼'



예감하는 서스펜스

뮤지컬 '레베카'(혹은 '리베카')의 원작은 본래 소설이다. '서스펜스의 여제'라 불리는 영국 소설가 대프니 듀 모리에(1907~1989)의 대표작이다. 1938년 출간되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절판된 적 없이 독자의 사랑을 받았으며, 출간되던 해에 전미도서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다. 작품의 영향력과 유명도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프니 듀 모리에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서스펜스와 스릴러, 미스터리가 '장르소설'이라는 구시대적 구분에 속박되어 있던 탓도 있을 것이고, 당대의 대중성을 획득한 여성 작가라는 위치와 평가도 불리하게 작용했던 듯하다. 대프니 듀 모리에의 지금과 같은 처지는 2차세계대전 전후,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많은 작가들이 우리나라에서 '세계문학전집'으로 패키징되어 고전으로 명명되고 있는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최근에 출간된 '인행'은 작가의 초기작을 모은 작품집이라는 데서 앞서의 평가와 편견에 균열을 낼 수 있을 만한 책이다. 작가의 다른 저서보다 문학성과 화제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인행'에는 집필 당시에는 발표되지 못했던, 작가의 초기작이 담겼다. 10대 후반 시절부터

2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 책의 작품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집필한 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필 시기의 작가보다는 인생 선배일 가능성이 높은 지금의 성인 독자에게까지, 이 작품이 서스펜스 문학의 전범이자 미학적인 단편소설의 전형으로서 충분히 훌륭하게 기능한다는 사실이다. 작가가 열아홉 살에 썼다는 '동풍'은 고립된 섬을 배경으로 갑작스레 찾아온 이방인이 몰고 온 균열을 인간 본연의 욕망과 결부시켜 그려 내는 소설이다. 남편 '거스리'와 영혼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제인'에게, 범선을 타고 나타난 낯선 사내들은 마치 동풍처럼 어쩔 수 없는 끌림으로 다가든다. 부정을 저지른 그녀는 남편에게 가질 마땅한 죄의식을 느끼지만, 남편 거스리는 취해 있다. 그는 대화를 이어갈 용의가 없다. 처단은 빠르고, 잔인했다. 동풍이 몰고 온 절망의 기운이 가득한 새벽, 범선은 썰물의 힘을 빌려 이미 섬을 떠나가고 없다. 작품의 줄거리를 감싸며 맥락을 만들어 내는 배경의 뉘앙스,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인물의 동선과 행동만으로 표현되는 복잡

한 심리, 끔찍한 결말을 담담하게 내어 놓는 과단성. 흥미진진한 천재 작가의 초기작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표제작 '인행'은 특히나 충격적이다. 주인공 '나'는 베일에 싸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고아로 알려진, 그 외에는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여성 리베카에게 완전히 빠진다. 이 치명적 사랑을 표현하는 문장을 보자. "나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했고 당신을 너무도 원했고, 당신에겐 너무 과분할 만큼의 애정을 쏟았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내 심장에 박혀 뒤틀린 뿌리처럼 자랐고, 두뇌를 파고드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었다. 당신은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어 버렸다." 리베카가 어떻게 했기에 이 남자의 고통은 이토록 절절한가. 프랑스 산업혁명의 원조적인 자크 드 보강송의 '기계오리'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이 작품은 이른바 '리얼물'로 불리는 섹스토퍼가 논란인 오늘날까지도 강력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행'을 표현하는 문장은 고지근 소설의 정점을 보여 주고, '인행'을 마주한 '나'의 독백은 수명이 긴 고전 소설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세삼스러운 말도 아니지만, 소설은 현실의 끔찍함과 기괴함을 따라잡을 수 없

다고 한다. 소설이 현실보다 앞서는 것은 현실에 대한 예감뿐이다. 대프니 듀 모리에의 소설이 현재성을 갖는 것은 거의 100년 전에 작가가 예감한 인간의 삶이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몇몇 사건은 그야말로 '서스펜스'이고 '미스터리'이다. 수도 서울의 수장이 알고 보니 성추행의 가해자였고, 그간의 행각이 세상에 알려질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해자는 신상이 탈리고 온라인에는 온갖 저열한 2차 가해가 난무한다. 가해자의 장래는 각계각층의 선택적 애도와 함께 5일 동안 치러진다. 그에 비할 수 없이 더 많은 날이 완전한 피해 복구에 소모될 것이다. 이 일련의 사태! 그 어떤 소설보다 서스펜스하고 미스터리하게 느껴지지 않은가? 대프니 듀 모리에가 2020년 한국에 다시 나타난다면, 소설을 쓸 수가 있으려나? 아마 그럴 것이다. 그의 소설은 현실의 재현이 아닌, 현실의 예감을 이루므로. 그리고 지금 한국의 젊은 여성 작가들은 어떤 예감을 내어 놓고 있는지 살펴 봐야도 좋겠다.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의료칼럼

진화하는 임플란트



박정희
화순 덕터임플란트치과 원장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높은 손 기술은 임플란트 시대를 맞아 치과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임플란트는 역사가 매우 오래됐다. 심지어 기원전에도 다른 사람의 치아나 돌을 사용해 빠진 치아 자리를 메운 유골들이 발굴되며, 1900년대 들어와서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됐지만 대다수가 큰 통증에 비해 효용이 매우 낮았다. 그러던 중 약 40년 전에 지금의 임플란트처럼 티타늄 금속을 사용해 만든 임플란트를 치조골 내에 삽입하고 그 위에 치아를 붙이는 형태가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임플란트의 시대가 막이 올랐다. 초기 임플란트는 치조골과 결합하는 금속인 티타늄을 사용했다는 게 큰 의미이며, 이전 여러 방법보다는 좋은 결과였지만 지금까지도 높은 성공률을 거두진 못했는데, 얼마 후 임플란트 표면 처리가 시작되면서 비약적으로 성공률이 상승했다. 물론 수술 방법도 그새 많이 발전했다.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활용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더 나아가 일명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식립 가이드를 제작·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한꺼번에 여러 개를 수술해야 하

는 경우나 혹은 임플란트 경향이 많지 않은 치과의사도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국내에서 특히나 활발한 임플란트 사용은 국내 임플란트 연구·제조업체들의 발전과 성장을 이뤘 내고 있다. 수많은 임플란트 회사들이 많은 연구와 투자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될 만큼 좋은 한국산 임플란트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는 담당 치과의사가 훨씬 더 많은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결정하기 보다는 치과의사가 최적의 종류를 선택해 주는 게 맞다. 임플란트가 대중화되면서 환자들 이 광고에 익숙한 임플란트 중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임플란트는 기존의 다른 보철물과는 다르게 수술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영구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모님이 주신 치아도

빠졌고, 그래서 해놓은 임플란트가 어찌 영구적일 수 있다는 말인가? 필자는 임플란트의 성공은 환자와 의사에게 반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환자에게 맞는 임플란트를 잘 선택해 최적의 방법으로 수술하는 것이 의사의 일차적인 책임이고, 나머지 열심히 관리하는 것은 환자의 책임이다. 여기서 관리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남이 있는 내 치아들과 같이 하루에 두세 번 칫솔질을 잘 해주고, 여기에 더해서 치간 칫솔을 하루에 한번 정도는 사용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치과 방문이다. 최소한 6개월 단위로 방문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초기에 해결해야 한다. 임플란트는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상당히 많이 진행돼도 증상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기계적인 연결이기 때문에 스क्र류가 풀려서 제자리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경우도 가끔 생긴다. 그 사실을 잘 못 느끼고 사용하면 어떤 힘이 누적돼 내부 스क्र류가 파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방문과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플란트는 지속적인 관리가 생명이 다.

기고

광주천을 활용한 기후·환경 관리와 관광벨트 구축



강현구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 회장

정이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광주시의 허파 역할을 해온 도시공원의 수많은 나무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금, 광주천 주변에 나무를 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나무는 도시의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 나무 몸통 위 나뭇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인 '수관부'는 상당량의 열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데, 예컨대 치밀한 단풍나무의 수관부는 맑은 한여름에 단파장 열에너지를 약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 공기의 정화율 돕고 바람을 조절하며, 소규모의 기후 조절 기능도 수행하며 대기 오염으로부터 도시인의 건강을 지켜주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수림대(삼림을 기후 조건의 변화에 따라 피 모양으로 배열한 것)를 조성하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더불어 광주천과 연계한 관광 벨트 구축도 고려해 볼 만 하다. 국립공원 무등산 입구를 시작으로 광주천 물길을 따라 네 가지 방향의 관광 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 '5·18 유적지와 양림동의 근대 건축물 탐방구역', '복합문화시설 이용 구역', '광주 폴리 구역', '광주시청 중심의

시민문화시설 이용 구역'으로 세분하여 제한할 수 있겠다. '5·18 유적지와 양림동의 근대 건축물 탐방구역'은 동구 불로동 천변에 위치한 옛 적십자병원과 5·18 민주광장 주변의 전일빌딩, 옛 전남도청, 상무관으로 구성할 수 있다. 양림동 선교역적인 오웬기념각, 우일선사택, 윈스보로우홀, 커티스메모리얼홀과 시 지정 민속자료인 고택 이장우 가옥, 최승효 가옥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복합문화시설 이용 구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역사마을, 전통문화 화를 엿볼 수 있는 광주항교,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있는 사직공원 및 전망대, 양동시장과 챔피언스필드 야구 경기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광주폴리구역'을 지정하여 광주천과 연결할 수도 있다. 문화전당 주변으로 옛 광주읍성 터를 따라 설치된 제1차 광주폴리의 11개 작품과 광주천, 경양방죽, 광주공원, 금남로 등 도시의 점과 축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광주시청 중심의 시민문화시설 이용 구역'으로 시청 옆 5·18 기념공원과 상무조각공원, 광주김대중컨벤션

센터, 상무조각장 부지에 들어서는 시립도서관 등을 연결할 수 있다. 이 중 시립도서관은 셰르비아 건축가 브리니슬라프의 당선 작품으로 2022년 준공될 예정인데, 시청 주변 협오 시설이었던 상무조각장을 교육·문화 시설로 탈바꿈시킨다는 취지에 맞춰 광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결론은 광주천을 중심으로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관광 벨트를 구축할 수 있고, 이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광주천변과 지상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통로 조성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진출입을 위해 철제 계단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시민들의 천변 이용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도 필요해 보인다. 이에 발맞추어 광주건축사회는 올해 광주천 공원화 및 관광 벨트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어 시민들과 건축 도시 전문가들이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

社說

'한국판 뉴딜' 지역 미래산업 육성 전기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대한 지역 사회의 기대가 크다. 정부의 계획에 광주·전남도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블루 에너지 등이 핵심 사업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구상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 44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이른바 DNA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광주시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AI와 데이터 분야가 골간을 이루고 있다. 광주는 이미 정부로부터 'AI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이끌어 냈고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에는 세계적 규모의 빅데이터 센터를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비 73조 4000억 원이 배정된 그린 뉴딜은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분야다. 도는 민선 7기 비전을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로 정하고, 6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블루 에너지' 분야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발굴과 함께 추진 전략을 마련, 이번 기회를 산업 구조 개편과 혁신 성장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정부 안을 뛰어넘는 새로운 그림을 제시, 광주·전남이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도시 지정 공모' 치밀한 전략 마련을

전남 지역 여섯 개 시군이 정부의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도전장을 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최대 2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 브랜드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4일까지 공모하는 '제3차 예비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전남에서는 여수·나주·광양·목포·고흥·담양 군 등 여섯 개 지자체가 나섰다. 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먼저 문광부가 문화도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자체가 수립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심의한 뒤 현장 평가를 거쳐 예비문화도시를 지정한다. 이어 1년간의 예비사업과 평가를 거쳐 문화도시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된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5년간

최대 200억 원(국·시비 균분)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문제는 문체부의 최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결코 녹록지 않은 평가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수십여 개의 지자체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5~10개의 예비문화도시 지정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제1차 문화도시 공모에는 19개 지자체가 지원해 경기 부천 등 일곱 곳이 지정됐고, 제2차 공모에는 24개 지자체가 응모해 그중 열 곳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문화도시라는 브랜드는 향후 도시의 위상과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모에 신청하는 전남 지자체들은 천혜의 바다와 항구, 생태, 인문 등 고유한 정체성과 색깔을 살려 문화도시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과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참 쉽죠?"(That easy?) 부풀어 오른 파마머리에 덤수룩한 수염을 기른 푸른 눈의 아저씨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캔버스에 바다와 산과 나무가 등장하고 순식간에 한 폭의 이국적인 풍경화가 완성된다. 오래전 TV를 통해 만났던, '밥 아저씨'라는 애칭으로 불린 미술감사 밥로스. 그는 씩씩 너무도 편하게 붓을 놀렸다. 그러다 보면 '마법처럼' 그림이 완성되곤 했다. 절로 탄성이 나왔다. 1994년 EBS에서 방영됐던 '그림을 그립시다'는 밥로스 작해 무대에 서기까지의 이야기와 삶의 단상을 묶은 책이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방으로 선보인 프로그램이다. 1983년 첫 방송을 시작해 총 31시즌, 403화로 구성된 '그림 그리기의 즐거움'은 미국에서만 9억3500만 가정에서 시청했고 영국·독일 등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다. 지난해 말부터 EBS가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이들을 위해 '밥로스의 그림을 그림시다'를 다시 방송하고 있다. (일요일 오후 5시) 인터넷을 통해 있고 지냈던 밥 아저씨를 만나니 옛 추억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따뜻해진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밥 아저씨의 귀환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